

### 골육종환자에서 술전화학요법의 효과

오현아·강희정·이구·최재혁·이재련·이경희·현명수·신덕섭<sup>1</sup>·류현모<sup>2</sup>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정형외과학교실<sup>1</sup>,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sup>2</sup>

**배경:** 골육종은 가장 흔한 골종양으로 과거에는 예후가 비교적 불량하였으나 최근 항암화학요법의 도입으로 인해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과거의 광범위절단술에서 사지구제술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교실에서는 1990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본원에서 골육종으로 진단받은 24명의 환자중 추시관찰이 가능하였던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전, 술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여 술전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방법:** 전체 20명의 환자중 술전 항암화학요법 시행후에 수술을 시행한 14명의 환자를 Group A라하고 adriamycin 25mg/m<sup>2</sup>를 제2일에서 4일까지 투여하고 cisplatin 120mg/m<sup>2</sup> 혹은 고용량의 methotrexate 8g/m<sup>2</sup>을 제1일에 투여하였다. 이후 조직학적 괴사가 90%이상일 경우에는 술후 동일한 방법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고 90%이하일 경우에는 다른 조합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이들중 12명은 사지구제술을 시행하였고 2명은 진행하여 사지절단술을 시행하였다. 나머지 6명의 환자는 Group B라하여 수술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군으로 항암화학요법을 거부한 2명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원발병소가 모두 사지의병소로 모두 광범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술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결과:** 평균나이는 27.5세이고 평균생존기간은 39.3개월이었다. Kaplan-Meier's plot에 의한 1년, 2년 평균생존율은 Group A가 92%,84%이고 Group B가 100%,75%였다. 조직학적 반응도는 술전화학요법을 시행한 14명의 환자군에서 시행되었는데 95%이상의 괴사(Huvos grade III or IV)가 9명, 95%이하의 괴사(Huvos grade I,II)가 5명에서 관찰되었고 그들의 생존기간은 각각 47개월, 20개월로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연령, 성별, 병소의 크기, 조직학적 아형에 따른 생존을 분석상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술전항암화학요법은 골육종환자에서 사지구제술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술전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여 환자의 사지구제술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생존율에 대한 영향과 조직학적 괴사정도의 중요성을 밝히기 위해서 좀더 많은 수의 전향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59세 여자에서 발생한 간내 다발성 결합조직형 소원형세포암(Desmoplastic Small Round Cell Tumor) 의 치료 1예

동아대의 내과, 해부병리과\* 김성근\*, 권혁찬, 김재석, 정진숙\*, 김효진

결합조직형 소원형세포암(desmoplastic small round cell tumor)은 주로 젊은 연령층의 남성이나 소아의 복부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조직학적으로 단일한 형태의 미분화된 소원형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원은 면역화학적 염색법과 염색체 연구를 통하여 Ewing 육종/원시 신경외배엽성 종양과 횡문근육종의 중간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상적으로는 진단 당시에 이미 간, 폐 및 임피선에 광범위하게 전이된 형태로 발견되어 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화학요법에도 잘 반응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치료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저자들은 내원 1개월 전부터 시작된 우상복부 동통을 호소하는 59세 여자환자에서 복부단층촬영을 시행하여 다발성 간내 종양을 발견하였고, 간생검으로 얻은 조직으로 H&E 및 면역화학적 염색을 하였다. 그 결과 myoglobin 양성, chromogranin 양성, cytokeratin(AE1/AE3) 양성, CD99 음성으로 나와 결합조직형 소원형세포로 진단되어 cisplatin, doxorubicin 및 lipiodol로 2차례의 간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간내 종괴의 크기가 더욱 커져 cisplatin, etoposide, cyclophosphamide, doxorubicin의 복합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총 3주기 치료 후 시행한 복부단층촬영에서 다발성 간내 종괴의 크기가 감소하는 부분반응을 보였다.

이에 저자들은 간내에 다발성으로 발생한 결합조직형 소원형세포암 환자에서 복합화학요법으로 치료한 후 부분 반응을 보인 1예를 보고하는 바이다.